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

8/22 월요일

아침의 누림

엡 1:10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엡 3:9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히 1:2

2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골 1:16-18

16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엡 4:13-16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오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삼일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어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시므로써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고, 그 결과 그들이 그분께 연결되어 하나가 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고 점유되며,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실체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 실체는 그분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 교회에서 시작되고, 다음 시대에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며,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계속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우주 안에는 ... 지구가 있고, 지구에는 여러 생물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생존을 위해 창조되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중심이다. (성전의 재건을 위해 뒤쳐지지 않음, 13 장, 22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에서 한 교회로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방적인 표현 곧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거니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인간 미덕들로 윤리적인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마 5:13-16).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 자신을 사는 것이며 이러한 삶에서 그분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우주적인 완결을 위해 그분의 유기적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엡 3:8-11).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삶으로 그분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한다. 그분의 속성들은 신성하지만, 그분의 미덕들은 인간적이다. 인간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또한 신성한 속성들은 인간 미덕들 안에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사는 것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우주적인 완결을 위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부분들로서 산다.

우리는 시편 1 편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 아님을 보았다. 그것은 오직 개별적인 경건한 사람의 개인적인 유익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시편 2 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 되게 하셨다고 말한다(2 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왕으로 세우시어 (6 절) 그리스도께 모든 민족을 유업으로 주시고 땅을 소유로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위대한 왕국을 얻게 하신다 (8-11 절).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께 입 맞추어야 한다(12 절).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

뿐이다. 그들에게 구원은 다만 천당에 갈 것인가 아니면 불 못에서 멸망할 것인가의 문제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그러나 시편 2 편은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께로 피해야 하며,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께 입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고려하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임을 시인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께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분께 벌을 받을 것인지를 고려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는다. 시편 전권은 첫 번째 중점부터 마지막 중점까지,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그분 안에 살게 하신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생활임을 깨달아야 한다.(그리스도인의 생활, 1 장, 20-2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성전의 재건을 위해 뒤처지지 않음, 13 장

8/23 화요일

아침의 누림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갈 6:18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요 3:34

3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또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 3:6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롬 8:10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요 1:16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고후 12:9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계 22:1-2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히 4:16).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또한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엡 2:22). 오늘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만질 수 있는데, 이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이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때맞추어 돕는 우리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는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2 장, 4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영과 함께하는 그분의 은혜로 새 창조물을 창조하셨다(갈 6:18).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사람의 영을 사용하여 누리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신)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다. 은혜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재화되신 하나님 아버지이다. 궁극적으로 그 영께서 곧 은혜이시다(히 10:29).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신 이 영은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머리와 왕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지위를 존중하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히 4:16)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머리의 권위와 왕의 권위와 지배 권위를 얻으시게 해야 한다(골 1:18, 계 4:2). 하나님의 보좌는 흐르는 은혜의 근원이다. 우리가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지 않고 보좌를 빼앗을 때마다, 은혜의 흐름이 중단된다(계 22:1).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으시도록 한다면, 생명수의 강이신 그 영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릴 것이다(히 4:16, 비교 계 22:1-2).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이다. 날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의 영을 받아들여야 한다(갈 3:2-5, 요 3:34). 우리가 하늘에 속한 전달에 우리 자신을 열어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은혜의 영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길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살전 5:16-18, 롬 10:12-13).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그분과 유기적으로 점차 하나가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될 것이다(고후 1:12, 12:9).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라는 것이다. 그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초점이다.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그 영을 신약의 중심되는 복으로 체험하고 누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서(빌 1:19) 우리의 영과 함께한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우리 사람의 영을 모른다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길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시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재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실재화되실 때,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새 창조물의

생활을 하는 데에는 우리의 영이 매우 중요하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3328-332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313, 332, 390 장

8/24 수요일

아침의 누림

갈 3:5, 2

5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2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요 3:6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4:24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롬 8:16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롬 10:12-13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엡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 장과 2 장은 계시에 관한 장이며, 우리 안에 계시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을 돌아볼 때, 3 장 2 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인 분은 그 영이심을 깨닫게 된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숨 쉬는 것처럼 평생 동안 계속되는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3 장 5 절에서 ... 현재 시제를 사용했던 이유이다. 이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공급하셨다거나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공급하고 계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영을 공급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그 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41 장, 40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한다(갈 6:18).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직 성령에 대해서만 알 뿐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것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 이외에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신약성경의 세 절에서 이 두 영이 함께 언급된다. 요한복음 3 장 6 절은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4 장 24 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로마서 8 장 16 절은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모두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에서 중요하다. 그 영은 바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이 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이 생명 주시는 영께서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신다. 고린도전서 6 장 17 절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것은 두 영이 하나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갈라디아서 6 장 18 절에 언급된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오늘날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누림이 바로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은혜이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누릴 수 있는지 아는가? 이런 식으로 주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절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는 걸을 때 팔다리를 쓰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팔다리를 저절로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을 저절로 사용한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 영에 따라 행한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물리친다.

성질에 문제가 있는 결혼한 젊은 자매가 있다고 하자. 그녀는 진정으로 현모양처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녀의 나쁜 성질을 혐오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 성질을 이길 수 없다. 오래전에 나는 성질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을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괴로움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임을 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성질을 정복하는 영적인 요소를 들이신다. 나는 오십여 년의 체험과 조직화된 기독교의 서로 다른 여러 방면을 접촉해 본 것을 통해, 주님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숨 쉬는 것을 ‘졸업’한다면 살아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없다. ... 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은혜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영적인 호흡을 할 것을 권한다.(갈라디아서 라이프스타디, 43 장, 422-42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1-3 장

8/25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5:10

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갈 2:20-21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21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 1:16-17

16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고후 12:9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은혜는 고린도전서의 중심 사상이다(비교 1:4). ... 이어서 1 장 9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에게 참여하도록, 곧 아들에게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께 동참하는 것이 곧 은혜이다.

고린도전서 15 장 10 절...에 세 번 언급된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고전 15:45), 우리가 부활 안에 살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부활 안에서 우리 안으로 이끄시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공급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313 장, 317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를 수 없고,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은혜이다. ...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기 위한 분이시지만,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할 뿐 아니라 또한 누리기 위한 분이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경배할 줄만 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삼일 하나님을 생명 주시는 영으로 누린다. 부활의 하나님은 누림을 위한 분이시다.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시다. 그보다 은혜는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다. 바울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단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활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부활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과정을 포함한다. ...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께서 통과하신 과정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삼십삼 년 반의 인간 생활과 여섯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과정을 통과하셨다. 그분은 죽으신 후 무덤에 안치되었다. 그런 후에 그분은 음부로 가셔서 죽음의 영역을 방문하셨다. 그후에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곳에서

나오셨다. 이제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과정을 거치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은혜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지금 부활 안에 계신다. 그분께서 부활 안에 계시므로, 그분의 믿는 이들인 우리도 부활 안에 있어야 하고 부활 안에 살아야 한다. 부활은 타고난 모든 옛것이 다 끝나고, 새롭고 영적인 어떤 것이 발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타고난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부활, 곧 타고난 것의 종결과 영적인 것의 발아이다. 부활 안에서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살지 않으며, 옛 본성이 종결되고 새 본성이 발아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만든 생명을 산다.

죄인들의 우두머리(딤후 1:15-16)인 다소의 사울이 가장 앞선 사도가 되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 은혜로 말미암은 그의 사역과 생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고린도전서 15 장 10 절에서 은혜는 부활 안에 계시고 부활 자체이신 그리스도이다. 바울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당시에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고린도전서 15 장 10 절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는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와 동일하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이시라는 것, 곧 사도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보여 준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313 장, 3173-317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65 장

8/26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1:12

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딤후 1:15-16

15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16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 주시므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이르려는 사람들의 분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빌 4:12-13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딤후 1:2

2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딤후 3:7

7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후 8:9

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분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더욱이 주관적으로 체험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 것을 통해, 그분은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 안에서 주관적인 분이 되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살아 있고 활력이 넘치며 활동적이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셨던 것이다.

사도 바울을 밀어 내고 사도 안에서 운행했던 은혜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 즉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사도 안에서 그의 모든 것으로서 사신 분이셨다. 이것은 빌립보서 4 장 13 절에 있는 바울의 선포와 일치한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 주시는 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313 장, 317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은혜는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떨어져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다. 은혜는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다. ... 고린도전서 15 장 10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어떤 것을 가졌다가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행하거나 갖거나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존재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존재 안으로 일해

떨어져서 그를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뜻이다. 은혜는 우리 밖에 있거나 우리 곁에 있지 않다. 은혜는 신성한 인격, 즉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놓여지셔서 우리 존재의 조성 성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은혜는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놓여지신 삼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놓여지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러한 존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일하시며 여러 일들을 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스스로는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수고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적한다. 바울과 함께한 은혜, 그리고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게 한 은혜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였다.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에게 공급을 주시고 그를 부축하시어 그가 그분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도록 하셨다.

역대로 주님의 모든 활력적인 종들은 그들 안에서 사시는 이러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우리는 박해와 반대를 받고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는 반대를 당할수록 더 살아나고 더 활동적이 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수고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일하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즉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분이 되셔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분과 동역하기 위해 바울에게서

배워야 한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일을 수행하거나 교회들의 짐을 질 수 없다. 그러나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어 우리 안에 사시는 분께서 일을 하시고 짐을 지실 때에는, 일을 하기가 쉽고 짐을 지기가 쉽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께서 사시고 일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은혜는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주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신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죄인을 가장 앞선 사도가 되게 할 수 있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313 장, 3175-317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31 장

8/27 토요일

아침의 누림

벤전 5:10

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계 22:21

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벧후 3:18

18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롬 12:2-3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3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딤후 4:2

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매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써, 가책받게 하고 책망하고 권유하십시오.

우리는 믿는 이들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라는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에 이르렀다. 믿는 이들의 매일의 체험은 반드시 은혜여야 한다. 만일 은혜가 아니라면 믿는 이들의 체험이 아니며, 은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반드시 은혜의 생활과 은혜의 체험이어야 한다. ... 은혜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체험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3 장, 5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혜로, 즉 은혜 안에서(in grace) 자라라고 말한다(벧후 3:18). 이것은 은혜가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은혜는 살아 있는 어떤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어떤 것이다. ... 이 은혜는 바로 신성한 인격,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분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은혜이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이신 신성한 인격 안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바란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년, 1권, 신약의 은혜, 1장, 560쪽)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라고 말한다. 이 절은 우리의 성장의 요소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이 절에 있는 ‘자라십시오’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그의 두 서신에서 쓴 것이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가리킨다(벧전 2:2, 엡 4:15, 골 2:19). 은혜로 자란다는 것은 신성한 능력(벧후 1:3-4)으로 말미암아 공급된 영원한 생명의 넘치는 공급으로 자라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음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를 누리고 또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자라는 것이다(요 1:14).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 공급으로, 즉 이러한 영양 공급으로 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은혜로 자라는 것은 생명 공급의 이러한 내적 근원 안에서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서신서의 시작에서 베드로는 은혜를 말하고, 마지막에서 그는 우리에게 이 은혜로 자라라고 당부한다.

은혜는 육체 되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하나님이다. 은혜의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와 하나 되도록 우리 안에 있다. 은혜는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은혜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가하심으로 자라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어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영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은혜로 자라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사도 베드로의 글을 결론짓는 말로서, 그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것임을 가리킨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은혜(로) ... 자라십시오.”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가 계시하고,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6절에서 바울이 계시한 대로, 먹이고 물 주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은혜로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과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림으로 자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존재의 모든 풍성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수록(엡 3:8), 더욱더 생명 안에서 자랄 것이다(4:15).

베드로는 ...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도록 격려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에서처럼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깨달음은 진리, 곧 그분의 전 존재의 실재와 같다. 베드로는 믿는 이들에게 은혜로뿐만 아니라 또한 이 진리로 자라도록 당부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 즉 그리스도를 보다 깊고 온전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자라고 발전하도록 돕는다. 모든 믿는 이들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랄 뿐 아니라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람으로, 지금뿐 아니라 영원의 날까지 영광이 그분께 있기를 바란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390장, 3947-3949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13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성전의 재건을 위해 뒤처지지 않음, 13 장
신약의 결론, 영문판, 313, 332 장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1-
3 장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65 장

2022. 8. 22 ~ 2022. 8. 27

단체로 읽을 말씀: “생명 나무”, 10, 11 장

찬송: 312 (英) 죄 대신한 은혜(中:248)

- 1 죄 대신 은혜가 내 맘 속 다스려
날 죄의 권능 벗게 해 옛 성품 벗게 해
(후렴)
은혜 족하니 무력함 없네
내 안에 사시는 주 곧 나의 은혜세.
- 2 주 은혜 하늘 길 행하게 하시네
때 따라 돕는 은혜가 늘 풍성하도다
- 3 주 예수 자신이 곧 은혜이시니
육체가 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 4 은혜 날 가르쳐 기도하게 하네
날 지켜오신 그 은혜 날 계속 지키리
- 5 영원히 은혜가 면류관 얻으리
사랑 안에서 찬양을 은혜에 돌리네
- 6 은혜가 내 맘에 신성한 힘 주니
내 능력 나의 평생이 은혜의 것일세

8/28 주일

아침의 누림

요 1:16-17

16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롬 1:5

5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15:15

15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 더욱 담대히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엡 3:7

7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운행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전 3:10

10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고전 15:10

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계 22:21

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